

제 12회 국립한밭대학교
수통골
문화가 있는 날

가을 콘서트

2024. 10. 17. (목) 오후 7시 30분
국립한밭대학교 아트홀 (N2동)

PROGRAM

사회: 최유미

Star Wars OST Medley

Electone 최유미

이흥렬
고향 그리워

Bariton 길민호

Hymne à L'Amour(사랑의 찬가)
Cheek to cheek

Vocal 백자현

성자의 행진
해리포터 메들리

금관 5중주 Brass bob

아름다운 나라
L.O.V.E
챔피언

보이스양상블 베르떼

어벤저스
디즈니 메들리

금관 5중주 Brass bob

지금 이 순간(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Nessun Dorma(공주는 잠 못 이루고_오페라 투란도트)

Tenor 전상용

Tonight(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Duet 백자현, 전상용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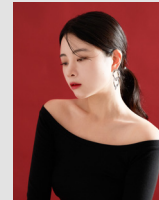
Bar. 길민호

-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립음악원 수석졸업
- 유럽, 한국 등 국내외에서 수백회 오페라 주역 및 콘서트 출연
- 유럽 등 유수의 국제콩쿨 다수 우승
- 리소르젠떼 오페라단 대표
- 국립합발대학교 문화체육부장, 산업대학원 부원장
- 국립합발대학교 교수



사회/Electon. 최유미

- 프랑스 파리고등사범음악원(ENMP) 피아노 최고연주자과정 수석 졸업
- 피아노 반주, 실내악 과정 수석졸업
- 파리 루브르박물관, 파리디드로대학교, 프랑스한국대사관, Salle Cortot 초청연주
- 미국 카네기홀 world choir초청연주, 비엔나UN본부갈라콘서트
- 상트페테르부르크 방송교향악단, 우크라이나 국립오케스트라, 대전시향, 세종시교향악단, 바흐콜레기움 등 협연
- 현)국립합발대 외래교수, 침신대 겸임교수



Vocal. 백자현

- 서울예고 성악과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로 실기우수 입학 및 수석 졸업
- 프랑스휴에이 말메종 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으로 만장일치 졸업
- 프랑스 장학 기관 CFA정기연주 솔리스트
-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와 함께하는 "프랑스 세계 음악축제" 공연
- 현) 사단법인 '아시아 청년 예술가 육성협회' 홍보 운영위원,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매일미사 솔리스트, 유튜브 채널 "장르는 자현" 운영



Ten. 전상용

- 이탈리아 'O. Respighi' 국립음악원 수석 입학 및 만점 졸업
- Mario Lanza 국제콩쿨, Rolando Nicolosi 국제콩쿨 등 다수 국제 콩쿨에서 우승 및 특별상 입상
- 2014 Roma Opera Festival - La Bohème 로돌포역으로 오페라 데뷔
- 국내,외 에서 La Bohème, L'elisir d'amore, Cavalleria Rusticana, Gianni Schicchi,
- Così fan tutte, 춘향전, 아!징비록 등 다수 오페라 주역
- 2021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주역



Brass bob

16년도에 창단한 금관 오중주 Brass bob은 대전을 주축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팀으로 기존의 트럼펫 두대와 호른, 트롬본, 튜바를 사용하는 다른 금관 오중주들과는 다르게 튜바 대신 베이스 트롬본을 씀으로써 더욱 화려하고 유니크한 사운드를 선보이는 단체이다.

여기서 bob은 best of best 의 약자로 최고중에 최고가 되자는 모토를 가지고 만든 이름이며 매사에 열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정신을 갖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보이스양상블 베르떼

보이스양상블 베르떼 (Berte) 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답다는 뜻의 'Bella'와 예술이라는 뜻의 'Arte'를 합성하여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역출신의 성악가들과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여성 성악양상블 팀이다. 색이 다른 두 명의 소프라노와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메조소프라노로 구성된 팀으로, 예술 가곡,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여성 양상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색을 연구하고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통하고 있는 팀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가지고 관객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팀 명에 맞게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예술과 노래를 선물하고, 소통하고 있다.